

# 히라카타 팔경

시 제정 35주년을 기념하여 '고향 히라카타' 다운 풍경을 후세에 전승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히라카타 팔경을 제정했습니다.  
1984년 10월 1일 제정 히라카타시



# 구다라데라 [백제사] 절터의 솔바람

나카미야에 있는 특별사적 구다라데라(백제사) 절터는 8세기 후반 백제 왕족의 후예인 백제왕씨(구다라노코니시키우지)가 나니와에서 이곳으로 이주한 뒤 일족의 집안 사원으로 건립한 절의 유적으로 추정됩니다. 1941년에 국가의 사적으로 지정되었고, 1952년 3월에 특별사적이 되었습니다.

정비 전에는 오사카부에서 오사카성과 동등한 특별사적임에도 불구하고 노송이 하늘을 뒤덮고 잡목이 무성해 출입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얼룩조릿대 사이로 주춧돌이 보이는 등 황폐한 모습이었지만, 1965년부터 일본 전국에서도 최초의 사적공원으로서 2년에 걸친 정비를 통해 시민을 위한 휴식의 광장이 되었습니다.

절옛날에는 '구다라지(백제사) 절터의 솔바람'으로 널리 알려진 것처럼 오래된 소나무와 잡목이 유구를 둘러싼 풍요로운 자연 경관이 특징이었지만, 2012년부터 시작된 재정비 사업으로 그 모습이 크게 변했습니다. 귀중한 유적을 보호하고, 건립 당시의 웅장한 풍경을 재현하기 위해 사적지 내의 송림 대부분이 벌채되었지만, 북동부 등 일부 소나무는 옛 모습을 오늘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원에서는 최신 발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당, 동탑, 서탑, 중문 등 기단이 충실히 입체 복원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쓰이지베이 토담 정비도 완료되어, 쌍탑식의 아름다운 가람 배치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솔잎 끝을 살짝 만지며 지나가는 바람은 옛날 송림의 기억을 간직한 채, 새롭게 부활한 '관사(국가의 감독과 보호를 받는 절)'로서 격조 높은 역사 공간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건넵니다.

English guide  
한국어 안내  
中文 指南



히라카타 팔경 위치도

